

라운아띠 8기 필리핀팀 11월 활동보고서

# Sabay-Sabay Ta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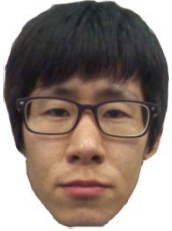
## (Let's do it together!)



산파블로 YMCA와 필리핀팀이 함께 합니다.

# I. Philmony with YMCA of San Pablo city

updated version!



**Manny (하민수)** : 왁스남, 낮잠남, 밤잠남, 군것질남

특징 : 절대 순규 단원보다 일찍 안 일어난다. 가끔 일찍 일어나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살핀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야금야금 군것질 잘함.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건 함정.

팀 내에서의 위치 : 형, 오빠      잘 하는 것 : 기타치기, 농구, 먹을 것 비축해 놓기.



**Sean(안순규)** : 개털남, 개정색, 할아버지, 나무늘보

특징 : 11 월 팀 리더. 심심하면 짜려본다. 안 나던 털이 자라고 심지어 사랑니도 남.

여자 좋아한다고 팀원들이 놀려대지만 실속은 없는 건 대 함정. 귀차니즘의 선두주자로 천성이

원래 게으름. 하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함.

팀 내에서의 위치 : 한량      잘 하는 것 : 반두리아 연주, 잔소리하기, 코 만지기, 게임하기.



**Liz(이예은)** : 욕쟁이(순규단원에게), 엄마, 인기녀

특징 : 점점 넘어지는 횡수와 강도가 줄어들고 있음.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크다.

진짜 커도 너무 크다. 맨날 소리 질러대서 목이 남아나질 않음. 일하려는 열정이 항상 넘침.

현지인들이 아름답고 어리다고 하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앎. 어떡하지?

팀 내에서의 위치 : 강 항상 리더인 듯      잘 하는 것 : NINANG 되기, 문자하기, 닭달하기.



**Jina(이금선)** : 큰 동네북, 까라바오(필리핀 소), 배불러, 대나무 인간, 졸리비, 어광골 짱

특징 : 바탕와이가 너무 좋아함. 계속 필리핀 남자 찾아달라고 말함. 따갈로그어를 굉장히

잘함(근데 다들 웃는다는 건 함정.) 갈수록 말라감. 항상 많이 먹는다고 주장함. 음식을 먹는

양에 비해서 좋아하는 건 엄청 많음.

팀 내에서의 위치 : 막내(나이만)      잘 하는 것 : 카톡하기, 콧소리 내기(안 그런다고 주장함).

## YMCA FAMILY(총장님과 Batang Y 삼총사)

**마미(크리스티 총장님):** 소파에서 자기, 심심하면 바탕와이 부르기, 커피 타달라고 하기, 한국인만 오면 참기름, 커피를 주문. 말이 많으심. 꽃 단장 하기.

**아이안(아들):** 컴퓨터 하기, 잡기에 능함.

**잭(딸):** 자신은 끝까지 부정하지만 누가 봐도 남자친구인 학교 훈남과 와이 현관에서 놀기. 맨날 놀기.

**제프리:** 알면 알수록 장난꾸러기. 다 잘함. 끈기가 엄청남. 라이언과 같이 아주 자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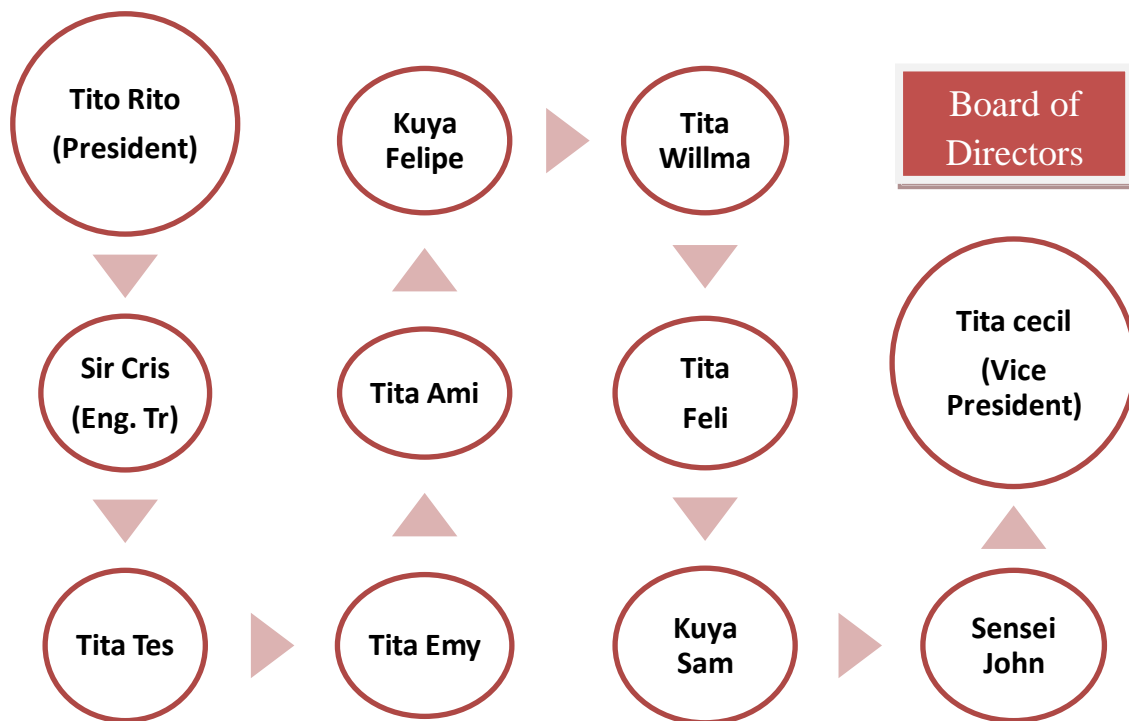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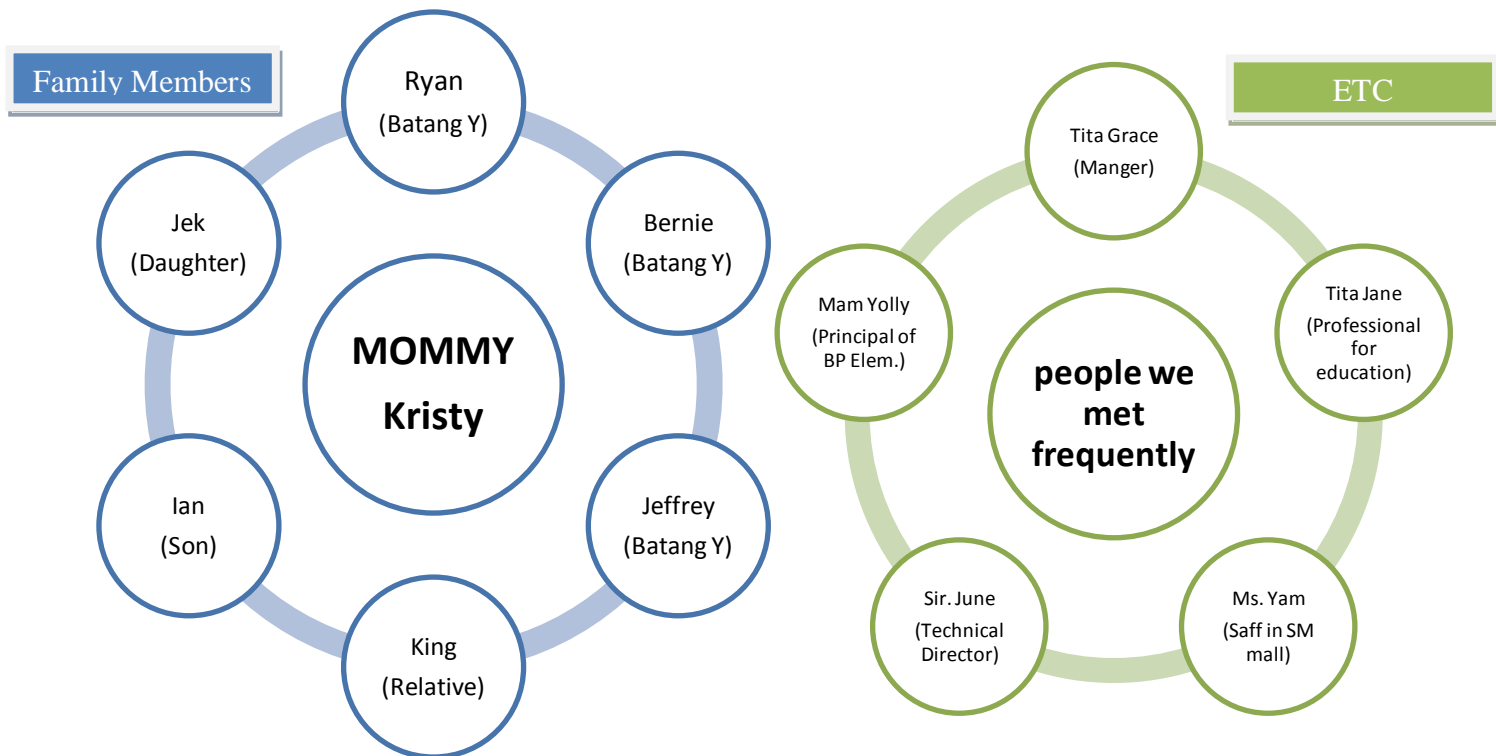
**버니:**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림.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표정이 풀어짐. 여자 타령하기, 맨날 하기. 그렇지만 가서 말은 못 검.

**라이언:** 귀여운 척 하기. 못생긴 얼굴 하기. 그런데 예전보다 확실히 못생겨지긴 함. 정색하기. 요즘 들어서 점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 필모니(Philmony) : 라온아띠 8기 필리핀팀의 팀명. Philippine 과 Harmony 의 합성어로, 필리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 2. 인물 관계도



### 3. 10월 스케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All Saint's Day	2	3 Jeffrey 생일
4	5 비자연장 ALS(영어)	6 밭 가꾸기 영어수업	7 도서관 'Hub' 방문 쓰레기통 만들기 밭 가꾸기 ALS(수학)	8 Feeding 영어수업	9 ALS	10 바공포옥초교 Beauty contest
11	12 Baloc 방문 ALS(영어)	13 Feeding English Class	14 밭 가꾸기 ALS(수학)	15 Feeding 영어수업	16 ALS	17 Reading program & Feeding
18 예은 생일 밭 가꾸기 (씨앗 심기 & 팻말)	19 ALS	20 ALS Feeding	21 ALS 시 체육대회 퍼레이드 참여	22 ALS Feeding	23 ALS	24 ALS Reading program & Feeding
25 ALS 시험	26 중간평가 준비 Dep Ed 방문 (중간평가 장소 섭외)	27 Feeding 중간평가 준비	28 중간평가 준비	29 Feeding	30 Pandin 호수 방문	

## 4. 필리핀 팀의 주요활동

### ♥ ALS(Alternative Learning System)

- 11 월부터 본격적으로 ALS 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Baloc, San Gregorio, Gawad Kalingad 등 3 개 커뮤니티와 Batang Y 입니다.

#### < Batang Y >

- Batang Y 의 경우 월요일에 영어, 수요일에 수학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보다는 금요일 정규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 선생님(라온아띠 따갈로그, 영어 선생님)의 화, 목 라온아띠 언어수업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영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 정규수업 >

- 매주 금요일은 ALS 정규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는 라온아띠가 수학과 영어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Batang Y 의 경우 주 중에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 학생들과 수업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업을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사무총장님이 에세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합숙훈련 >

- 내년 1 월에 예정되어 있던 시험일정이 갑작스레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정도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간에는 매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참석하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모두 모여서 함께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Baloc 학생들의 경우 YMCA 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숙훈련을 하였습니다.



< 시험당일 >

- 11 월 25 일에 ALS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수 많은 응시자들이 Central school 에 모여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지원을 늦게 한 학생들의 경우 결원이 생겼을 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내년 3 월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Feeding program

- 주 1 회의 활동으로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월부터는 아침 Feeding 을 2 회로 늘림과 동시에, 새롭게 주 2 회의 점심 Feeding 도 시작하였습니다.



### < 아침 Feeding >

- 아침 Feeding 의 경우 메뉴가 대부분 바이타밀(Vita Meal)을 첨가한 참포라도(Champorado)인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바이타밀의 쓴 맛 때문에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eeding 전 날부터 아침까지 물에 담가 놓아서 최대한 쓴 맛을 빼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을 꾸미는 활동에 아이들을 참여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목요일 Feeding 이 후의 Activity 때에는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도서관을 꾸밀 자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Reading Program 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점심 Feeding >

- 11 월 첫째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 점심 Feeding 을 시작하였습니다. 점심을 굶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결국 학교의 요청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담당하던 점심 피딩을 Y 가 넘겨 받아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40 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반찬은 저희가 준비하여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 ♥ Reading program

- YMCA 내 자원 봉사자인 tita Jane 과 함께 토요일에 Bagong Pook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Reading Program 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에게 모두 나누어 줄 수 있는 책을 찾던 도중 DEP ED(교육부) 산하에 있는 'Hub'도서관에서





책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역의 학교에 한 종류이지만 여러 권의 책을 대여를 해주고, 각 학교가 매주 책을 교환하는 형식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70 여 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0 여 명 정도의 인원만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소리에 관한 수업을 했고 두 번째 주는 위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패스트 푸드에 관한 수업을 했습니다.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병행하며, 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교훈과 액티비티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Feeding 을 실시합니다.

### ♥ All Saint's Day(만성절)

- 11 월 1 일은 필리핀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이란 말 그대로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이라는 의미인데, 죽은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이 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일부는 공동묘지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또한 동참을 하였습니다. 사무총장님의 어머니 묘지에 방문하여 YMCA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 ♥ Gardening & Bin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YMCA 의 환경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의 일환으로 Raonatti 와 Batang Y 가 서로 한 명씩 짝을 이루어서 총 4 개 조로 YMCA 뒷뜰에 밭을 일구었습니다. 고추, 무 등



서로의 기호에 따라서 씨를 심고 팻말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확을 하는 팀에게는 사무총장님께서 작은 선물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물 뒷편에 분리수거통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통에 종류별로 각각 페인트 칠을 하였습니다. 밭 가꾸기와 분리수거통을 통해서 YMCA의 환경이 더욱 쾌적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Beauty contest in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 11월 10일 Bagong Pook 초등학교에서 'Mr & Ms United Nation'이라는 주제로 Beauty contest를 개최하였는데, 저희를 심사위원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미리 선발된 아이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경연을 펼쳤고, '강남스타일'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하였습니다.. 두 단원은



심사를 하고, 나머지 두 단원은 contest에 모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Feeding Program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 5. 이번 달의 회의록 (11월 17일자)



**순규** : 아 엄청 덥네.. 오늘 모두 다 너무 수고했어요! 토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읽기수업을 하는 열정, 멋지다!

**민수** : 맞아. 처음이라 어떻게 할 줄 잘 몰랐는데 오늘 하고 보니 다음주에 뭐해야 할지 떠올랐던 것 같아.

**순규** : 자 그럼, 오늘 처음 읽기수업을 했으니 각자의 느낌도 좋고 감상도 좋고, 수업했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금선** : 사실 우리가 받은 리스트에는 아이들이 80 여명 정도가 되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막상 20 명 정도 밖에 안 왔네요. 그래도 우리 네 명하고 띠따 제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학생수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오는 것보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해 20~30 명 내외로 오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예은** :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워낙 많이 겪어본 일이니 몇 명 오는 건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아요. 문제였던 건 아이들이 적어서 모든 학년을 합쳐서 수업을 했더니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수준 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순규** : 그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생각하고 이해하려 해도 제대로 된 수업이 되려면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구요.

**예은** : 첫 시간이라 그렇긴 했지만 너무 책만 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고 싶기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지루해하고 그냥 학교수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음 수업부터는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다른 활동도 첨가하고 게임도 준비해야겠어요. 단어 공부를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오늘 배운 10 여 개의 단어 중에서 몇 개나 기억할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선** : 아이들이 재미없게 느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주에는 아이들이 더 안 올 것 같기도 하구요.. 공부도 공부지만 흥미롭게 기획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확실히 고학년에게는 너무 쉬운 것 같았어요. 책이 한 종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워요..

**예은** : 수업 배치, 수준별 학습. 가능하다면 바로 실행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학년은 영어를 잘 못하니 띠따 제인에게 부탁을 드리고, 고학년은 우리가 같은 포맷으로 직접 수업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실에 놓고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처럼 밖에서 할 것인지, 책상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순규** : 수준별 학습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책이 우리에게겐 쉬웠을지는 모르나 아이들의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땐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단어 수준도 그렇고. 돈이 생기면 책을 또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은 허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으로 수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 산파블로 시의 교육부에서 책 교환 프로그램을 하는데, 매주 각 학교에 100 여권의 책을 대여해 준다. 권수는 많지만 아쉽게도 한 종류라서 수준별 학습은 어려운 상황이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내에 책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민수** : 수업 준비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우리가 처음이라서 놓친 부분도 많고 약간 우왕좌왕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준비한 단어 중에 팀원 모두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단어가 있었잖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수업 방식도 아이들이 산만한 것을 감안해서 동선이라던가 참여유도 등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예은** :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요. 우리가 직접 읽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채 8 번도 안돼요.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순규** : 홍보의 측면에서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도 요청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 가서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안 오는 거 보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광고지를 만들 수도 있고 타폴린을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달경로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예은** : 크리스마스 때에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파티를 가장한 읽기 프로그램!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수업이 없고 저희 프로그램도 3 주정도 못하는데 가능한 날 최대한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선** : 뭐 더 하는 건 아무런 이견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 볼 기회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민수** : 시간 진짜 빠르다. 가능한 시간 최대한 총 동원해서 많이 하고 갑시다. 그리고 단순히 읽기 프로그램이 라온아띠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순규** : 그래요. 좋습니다 모두. 오늘 휴일이니까 꼭 쉬고 계속 우리의 활동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수고했어요. 쉬세요~

## 6. 향후 계획

♣ **Feeding** : 11 월에는 지난 달에 세웠던 계획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피딩은 사랑과 희망의 학교(장애인 학교)에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고,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만 현재와 같이 주 3, 총 4 회의 피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30 명의 학생들에게 점심 피딩을,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 오전에는 Vita Meal(후원 받은 잡곡)을 이용한 스낵 피딩을 할 계획입니다.

화	목	토
점심 피딩	스낵 피딩, 점심 피딩	스낵 피딩
학교에서 선정한 30 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밥과 간단한 반찬 피딩	9,10 월에 해온 대로 학교에서 선정한 학생들(90 여명)에게 Vita Meal 을 이용한 음식으로 피딩 (점심 피딩은 화요일과 동일)	초등학교 내의 도서관과 연계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 Vita Meal 을 이용한 음식으로 피딩 진행 (대상 학생 수는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

♣ **ALS** : 지난 달과 비교하여 향후 ALS 계획에는 큰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래 1 월 6 일로 예정되어 있던 시험이 갑작스레 11 월 25 일로 바뀌어서 이미 ALS 시험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12 월에는 ALS 와 관련된 활동은 없을 예정입니다.

♣ **도서관** : 매주 목요일 피딩 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그림에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본인들만의 책을 만들었고 이 작품들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의 경우, 바공포옥 초등학교 도서관의 책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책 읽기 장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주 100 여권 정도의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12 월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2 월에는 저희가 Pangasinan 이라는 지역으로 열흘 간 다른 커뮤니티 경험을 위해 산 파블로 YMCA 를 떠나있게 되고, 크리스마스 방학도 있어서 토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저희가 없는 기간에는 Tita Jane 이 토요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 주실 계획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급문고도 만들 예정입니다. 중간평가단으로 오신 안산 석수골 도서관의 임은아 관장님의 제안으로 직접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각 학급에 배치하여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아이들이 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1 월초에 바공포옥 초등학교 입구에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논의 중에 있지만 학교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찾기 힘들 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라온아띠가 노력할 것입니다!

### ♣ 빈곤퇴치 캠페인 :

#### 1. 지역 사립 초등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산 파블로 시티 내에는 Canossa College 라는 사립 학교 재단이 있는데, 현재 산 파블로 YMCA 의 Vice president 인 Tita Cecil 이 그 재단에 속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입니다. 그 분의 도움으로, 오는 12 월 17 일 초등학교 6 학년, 2 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가 100 명의 마을이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빈곤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2. 빈곤퇴치 마라톤 대회 (FUN RUN)

지난 10 월 28 일, 지역 마라톤 클럽의 FUN RUN 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 월 20 일에 산 파블로 YMCA 주최로 FUN RUN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의 경우, 저희의 주최 의도(빈곤퇴치)를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저희가 디자인한 End Poverty 핀을 구매함으로써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가비로 얻은 수익은 모두 바공포옥 초등학교의 학생이나 ALS 프로그램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 7. 칭찬타임

♣ 라온아띠 필리핀 팀은 매주 토요일 정기 회의 시간에 칭찬타임을 갖습니다. 한 명의 팀원을 지목해 일주일 동안 칭찬거리를 찾은 후 다른 팀원들이 그 팀원을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라온아띠 일정 동안 한번쯤 쉬어가자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 줌으로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 제안자의 한 마디 : 너무도 아쉬운 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의 칭찬타임에서 한 달간의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칭찬하자고 하지 않더군요. 나쁜 사람들.. 덕분에 다른 팀원들 칭찬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 . 제가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활동간 힘든 단원들에게 에너지를 주자는 의미도 있었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아쉬운 점을 말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누군가 저에게 말했었는데, 그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서로 욕을 너무 많이 해서 ^^;;

앞으로는 제가 끝까지 이 시간을 사수해서 팀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전달하겠습니다. 팀원들이 이 글 읽어보고 칭찬합시다의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순규** : 예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중도를 잘 지키는 것 같음. 일을 할 때와 쉴 때를 구분을 잘하고, 그래서 별로 스트레스 안받고 잘 지내는 것 같음.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음. 한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냄. 마음씀씀이가 젊은이의 그것이 아님. 남을 잘 챙기고 포용하려 함. 손자들을 대하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될 듯.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화두를 던지고, 걸음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 틈만 나면 무엇인가 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음.



## 8. 이 달의 타갈로그어 문장

- **Manny(민수)** : Kumain ka ba? (Did you eat?, 밥 먹었어?)
- **Sean(순규)** : Bakit ay ka sobrang panget? (Why are you so ugly?,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 **Liz(예은)** : Masaya ako dahil sayo. (I am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네 덕분에 행복해.)
- **Jina(금선)** : Ako ang susunod na General Secretary nang YMCA of San Pablo City. (I will be the next General Secretary of YMCA of San Pablo City, 저는 산 파블로 시티 YMCA 의 차기 총장이 될 거예요.)

## 9. 이 달의 사진



<ALS 시험이 끝난 후 수강생들과!>

\* **선정 이유** : 11 월을 멘봉으로 장식해준 ALS! 갑작스런 시험일 변경을 인해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험날을 몇 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시험준비에 착수해야 했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럽습니다. YMCA 에 몇 일간 합숙하면서 시험통과 의지를 불태웠던 수강생들. 라온아띠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도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관계로 이번 달의 사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험결과는 내년 3 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모두 행운을 빌어요!

\* **주목할 점** : 다들 신나고 즐거워 보이지만 한편으론 피곤에 찌들어 있는 인물들의 모습.

## 10. 이 달의 인물 : 안토니 레이몬드 로페즈 (Anthony Raymond Lopez·ALS 수강생) - 발족 커뮤니티에서 온 알스 수강생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음

### 1.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토니 레이몬드 로페즈라고 합니다. 1991 년 9 월 5 일 생이예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1 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 ALS 시험을 봤습니다. 현재는 ALS 결과를 대기 중인 상태고, CIT(Capellan Institute of Technology)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전공은 하우스키퍼링(housekeeping)이구요. 최종시험은 1 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이예요. 사실 대학에 가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싶지만, 사정상 일단은 직업을 먼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형(22)과 누나(23)가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17)이 하나

있어요. 제가 셋째(21)죠. 현재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형입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셨지만 큰누나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그만 두신 상태예요. 교회를 다닌 지는 6년 정도 되었고, 현재 교회에서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로는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목사님께 모든 사항을 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예배시간에 발표할 글 작성하기, 기도하기, 오전-오후 예배 참여하기,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2.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하루 일과를 간단히 말해주세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ALS 시험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 공부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발록에 있는 어린 동생들을 돕는데 더 주력했습니다. 발록의 ALS 수강생들을 불러 모아 YMCA에서 한 합숙훈련에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나이가 많은 수강생에게는 차비를

줘어주면서까지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올 수 없었던 빌리에게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해주기도 했고요. YMCA의 헌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록 학생들과 Y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야채를 마을 주민에게 구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있을 때는 6시에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은 ALS 시험이 끝나기는 했지만 CIT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그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에요. 교회의 목사님께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 역할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틈이 날 때마다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하지요. 교회에서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안무를 짜는 일도 한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조금 달라요. YMCA 근처의 CIT 직업학교에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가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 옷가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밤 9 시까지 CIT 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험을 꼭 통과하고 싶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밖에서는 말이 많고 장난을 많이 치지만, 집에 들어오면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네요. 그 밖에는 교회 목사님의 심부름을 한다거나, 12 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평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일요일에는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 합니다.

### 3. YMCA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온아띠에 대해서는?



ALS 프로그램을 인연으로 라온아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라온아띠와 YMCA 는 모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고,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라온아띠와 YMCA 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Blessing)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의 마음과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깝다. 저 기회를 받은 사람이 나라면... (Sayang! Kong akin yon.....)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게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제게 손을 내미시면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ALS 와 CIT 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 교회를 다니기 전의 삶과 교회를 다니고 나서의 삶에 대해 듣고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했나요?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사실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시다.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죠. 12 살부터 17 살까지 술도 많이 마셨고, 욕도 많이 했고, 도박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패를 잡으면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도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때 만나던 친구들과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확연히 달라요. 사실 CIT 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제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들, 술,

담배, 여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같이 어울렸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친구와 문자를 하거나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물론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요.

5.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ALS 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요, CIT 에서 하고 있는 공부를 다 한 뒤에 1 월 초에 있을 최종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취직을 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돈을 모을 예정입니다. 목표는 내년 6 월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인데, 대학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아 가능할 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면 내년 3 월쯤이나 될 텐데, 세 달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설사 첫 학기는 다닐 수 있다 해도 다음 학기를 다닐 수 없을 테니까요. 한국에서도 한 학기는 일하고 한 학기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9 살에 졸업을 하게 되겠죠? 필리핀 남자의 29 살은 한국 남자의 29 살과 다릅니다. 필리핀의 대학교 1 학년이 17 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9 살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21 살부터 25 살 까지, 4 년 연속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학교 4 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ALS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 해온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습 능력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장학금을 받는 시험도 ALS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워, 장학금을 얻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학교 4 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ALS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 해온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습 능력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장학금을 받는 시험도 ALS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워, 장학금을 얻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6. 좌우명이 뭐예요?

사랑은 자비로우며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사랑은 자비로우며,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인 것이고요.

## 11. 한국 & 필리핀 문화비교 (주제: 필리핀은 서양인가, 동양인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이지만, 동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서양에서 볼 법한 요소들이 생활 속에 녹아있다. 먼저, 식사할 때! 필리핀에서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한다. 포크, 숟가락과 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권 문화도 아니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양권 문화도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요소가 함께 녹아있다. 그리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막내(분소, buns)가 식사를 먼저 시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런 필리핀 특유의 문화는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지만, 동양권에서는 비슷한 문화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동양은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식탁에서 누군가를 예우한다는 점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필리핀은 '동양'권 국가답지 않게 낯선 이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잘 받아준다. 한국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면, '날 모르는 사람이 왜 내게 인사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 곳 필리핀에서는 라온아띠 단원들이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네면 그에 화답하는 인사가 100에 90은 돌아온다. 이런 요소는 유럽,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양권 국가에서 흔히 찾아보기 쉬운 모습인데, 아무래도 스페인, 미국과 같은 서양 국가의 지배를 오랜 시간 동안 받은 탓도 있는 듯 하다.



YMCA San Pablo City 의 막내, 킹(King) / 숟가락과 포크를 들고 파파야를 먹고 있는 순규 단원

## 12. Meatless Monday & 나비효과, 나의 효과

### 1. Meatless Monday

● **Manny(민수)** : 'Meatless Monday'? 그게 뭐지? 먹는 건가? Meatless Monday 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다. '나비효과, 나의효과'의 경우 환경보호를 생각하기 이전에 낭비되는 자원이 아까워서 철저하게 지켜지게 된다. 그러나 Meatless Monday 는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없고, 실천할 때 뒤따르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힘든 것 같다. 특히나 체중 증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나로서는 식단의 열량이 많이 신경 쓰인다. 하지만 이 일이 환경을 위한 것이고, 환경을 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지금은 억지로 하는 것일지언정, 언젠가 익숙해지면 기쁜 마음으로 실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 **Sean(순규)** : 불굴의 의지(?)로 이번 달은 Meatless Monday 를 지켜내고 말았습니다. 비자연장으로 인해 마닐라에 갔을 때 특수한 상황이라 고기 섭취가 가능했지만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음식을 섭취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한번 정도 고비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리는 음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조리법만 잘 맞춘다면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환경오염이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믿는 편입니다. 어떠한 경로가 되었건 간에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킨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한 자연의 변화를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실천해봐야 무엇이 변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Meatless Monday 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Liz(예은)** : 지난 11 월은 고기 없는 월요일을 지킨 날보다 지키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것 같다. 매달 4 번 꼬박꼬박 지키지 않은 것보다야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지켰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산 파블로 와이에서 사는 우리들로서는 와이 식구들의 입맛과 기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와이 분위기 상 고기 없는 월요일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든 식구가 야채, 생선과 계란만 먹는 것이 기특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칠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발록의 친구들이 가져다 준 야채로 식단을 꾸린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내 기준에서는 최고의 '고기 없는 월요일' 식단이였다. 호박, 가지와 토마토 등으로 꾸린 식단이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야채들을 가져온 발록 친구들과 음식을 함께 나눌 기회가 적었다는 점인데, 발록에 사는 친구들 중 몇몇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생활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머리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 **Jina(금선)** : 이번 달은 Meatless Monday 를 반 정도만 실천한 것 같아요. Meatless Monday 인 걸 인식하고 있어도, 불가피하게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월요일이어도 때에 따라 식단에 큰 격차가 있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월요일은 고기 없이도 꽤나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반면, 또 어떤 월요일에는 정말 '아 오늘이 Meatless Monday 구나' 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힘겨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늘 그렇듯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 없는 식단이 어렵지 않은데, 다른 팀원이나 산 파블로 YMCA 식구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가끔 보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고기에 길들여져 있는 지도 깨닫게 되지만, Meatless Monday 말고도 탄소를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환경에도 이롭지만, 그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즐거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 2. 나비효과 나의 효과

● **Manny(민수)** : 얼마 전 YMCA 에 가스가 바닥나고 수도세를 못 내서 물이 끊길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기본적인 것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나비효과, 나의 효과'를 철저히 지켜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거창하게 환경을 운운하기 이전에 YMCA 의 살림을 위해서라도 자원을 아끼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 **Sean(순규)** : 환경오염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효과 나비효과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Y 에 살다 보니 가끔 Y 의 공과금을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Y 의 공과금이 현재 3 달씩 밀려있다는 점입니다. Y 에서 살다 보면 새고 있는 에너지, 물 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아깝게 낭비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번 달은 개인적으로 전기를 아끼기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 했는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Y 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중단해야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Y 도 돈이 없는데... 일단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더 큰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Liz(예은)** : 솔직히 말해, 11 월의 나의 효과 나비 효과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라온아띠에서 하고 있었지 하는 것도 지금 월말 보고서를 쓰면서 아차! 싶었다. 11 월은 미뤄졌다고 생각했던 알스 시험이 갑작스레 앞당겨져 모든 정신을 알스에 쏟았다. 다른 곳에 분산시킬 정신(?)이 없었다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만큼 내가 특별한 신경과 노력을 쏟지 않으면, 즉 '나비 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거다. 이런 프로젝트를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고려하는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사람들은,

나같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 솔직히 말해 내 경우는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의문이다. 샴푸와 린스를 아껴 써서 환경을 보호하기 보다는 필리핀의 뜨거운 열에 타버린 내 머릿결이 더 소중한,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를 정해진 용도로만 잠깐 사용하기에는 페이스북 눈팅이 더 재미있다. 자연을 위해 컴퓨터 사용을 제어할 만큼 나는 친환경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그런 행동을 선택해야 할 유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게 되는 나다. 아직도 갈 길이 삼만리구나 싶은 밤이다.

● **Jina(금선)** : 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버려서 그런지, 이번 달에는 무언가 특별히 나비효과 나의 효과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늘 했던 대로, 적정량의 샴푸 사용(500 원 동전 사이즈 정도), 트라이씨클 타지 않기, 플러그 뽑기, 밥을 때는 불 켜지 않기 등의 습관은 이번 달에도 잘 지켜왔고요. 아, 음식물 남기지 않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곳 필리핀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사양 문화'가 있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적정량의 음식만을 담아서 먹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만들지 않게 되었어요.

### 13. 한 달을 마무리 하며...

#### ♪ Manny (민수)

<11 월을 마무리 하며>

처음 라온아띠에 지원할 때, 그리고 국내 훈련을 받을 때에는 5 개월 동안의 시간이 보람과 즐거움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까지 무언가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마음 속에서는 허전함을 많이 느꼈었다.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생각해 보면 이것 저것 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물은 없었던 것 같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보상이 있을 때 만족함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을 원했다면 이 곳에 왔을 리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성과물을 통한 정신적인 만족은 기대했었던 것 같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전을 품어왔는데, 정작 활동을 하다 보니 이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나는 이타주의로 포장한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비록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열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게다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다. 자연스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됐다. 솔직히 현지 활동을 하는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에 반해 나는 자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에 일을 하러 왔나?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라온아띠에 지원을 했었나? 그건 절대 아니다. 분명 처음에 라온아띠에 지원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었다. 높은 경쟁률을 통과할 자신도 없었고, 처음 접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단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미리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했었다. 아마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고 지냈었던 것 같다. 처음의 각오를 생각하며 활동을 했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솔직히 지난 3 개월이 아깝게 느껴진다. 반면에 남은 2 개월은 더욱 기대가 된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 Sean (순규)

*당신은 정말 변했나요?*

이곳에서 활동한지도 벌써 3 달이 되었다. 이쯤 되면 나의 활동을 멋진 몇 마디의 말로 정의하고, '나는 이렇게 멋진 놈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어렵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각종 고민이란 고민은 다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대답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아마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내 스스로 확신한다.

중간이 넘어버린 중간평가가 되었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다. 단순히 활동보고의 차원이 아닌 팀원간에 그 동안 보고 느낀 점 들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할은 이곳에서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안산 Y 식구들이 해주신 말씀, 이아나 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잘 되새겨서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스케줄이 없다고 10 월 달 보고서에 징징댄 것 같은데 이번 달은 맞춰진 스케줄에 따라서 바쁘고 보람차게 살아온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면서 모든 활동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 '산 파블로 Y 에 라온아띠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산 파블로 와이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 모든 활동이 지역민들과 연계되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기 위한 열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노력에만 그친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이곳 Y 의 한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예산부족, 인력부족. 모든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활동에 제약성도 많아지고 과감성도 떨어진 것 같다. 프린트 한 장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자원은 많이 있는데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필리핀에서의 활동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살자!'라는 마인드를 갖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시간과 예산 노력들이 너무나도 아깝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긴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든다. 벌써 라온아띠 활동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답은 없겠지만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 ♪ Liz (예은)

필리핀 팀은 제일 마지막으로 중간평가를 치르느라 11 월에 중간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11 월 월말 보고서는 활동 중반의 문턱을 넘어선(?) 기념으로 중간평가에서 말한 감상을 주로 담으려고 한다. 내용은 실제 중간평가에서 말한 것을 한글로 번역했다.

먼저,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에 온 것이 나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온아띠는 내게 천금 같은 기회였다.'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에서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고, 어떤 체험이든 간에 라온아띠가 아니고서는 겪기 힘든 것(팀 생활, 자원활동가의 삶을 들여다 보기 등)이라 생각하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다.

처음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생각했다. 국내훈련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병만 식 오지'를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이었는가를 살면서 더 느끼고 있다. 특히 오기 전에 집이 오지 같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환경이 좋았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열악하지만, 내 상상보다는 나았다. 우리가 지내는 공간이 생활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질 않는다는 단점,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함께 사는 곳이다 보니 매우 친해진다는 장점도 함께 있다. 아쉬운 점을 조금 더 적자면, 총장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전날 큰 행사가 있다고 하면, 밤 12 시에도 호출이 가능하다. 언제든 생활 공간이 사무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조절을 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지난 9 월과 10 월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능력이 탁월하게 계발된 것 같진 않다. 또, 가까운 곳에 나갈 때에도, 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해 자유도가 0 이다. (물론 안전 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진짜 가끔은 정말 그냥 가볍게 나가고 싶다.)

새벽 2 시에 바퀴벌레가 내 다리를 기어오르기도 했고, 나는 그것을 모르고 맨손으로 때려잡은(?)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만 놓고 보면 살만은 하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다 인 것 같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라면, 칠성급 호텔 같은 곳에서 라온아띠 활동을 해도 내가 사는 곳이 여인숙처럼 느껴질 거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안산에서 국내훈련을 할 때부터 느낀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의 근원적인 한계점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사실 고쳐야 한다기 보다는 그냥 그게 시민단체를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되는 것 같다. 크게 두 가지다.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사람 손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가 있는 산 파블로 와이는 총장님이 유일한 직원이라서, 일이 가는 듯하다가도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벌여 놓는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이곳만의 특징은 아니고, 모든 총장님의 특징이라는 아나 간사님의 말을 듣고는 그간 쌓였던 불만이 많이 해소되긴 했다. 이걸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수긍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고. 역시나 다른 스태프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또 돈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 와이 건물 수도비, 전기비, 인터넷 비, 가스비 등이 기본적으로 3 달은 연체되어 있다.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노출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로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가끔 우울해 하는 모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바공포옥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종이, 색칠도구, 풀 등등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충족이 잘 안 되고, 에이포 용지에 인쇄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좌절된 적도 많아 내적으로 갈등이 많았다. 이해는 하지만, 짜증은 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그간 많이 전개되었다. 안산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같은 시민단체라도 필리핀에서 살림을 꾸리는 것이 열 배는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와이는 건물과 농구장이 없으면(그나마도 오래되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진짜 살아갈 수가 없다. 정말 풀죽으로 연명하는 사람 같다는 비유가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짜증도 났었는데 그 때 마다 여유로운 성향의 팀원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팀원들도 내게 그러리라. 필리핀에 오기 전에는 팀원도 변하고 나도 변할 줄 알았지만, 팀원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팀원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변하고 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면 알이 투명한 안경으로 바꿔 낀다 고나 할까? 아마 그런 쪽으로 나를 잡아주는 이들이 없었더라면 소진이 오거나, 중간 평가단 앞에 서서 즐겁게 발표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남은 2 개월을 어떻게 보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다음 2 달 동안의 화두가 될 것 같다. 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참 걱정이다.

## ♪ Jina (금선)

11 월은 뭔가 정신 없이 흘러갔던 것 같다. 매달 보고서를 쓸 때마다 하는 말 같아서 이번에도 쓰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11 월 1 일에 산 파블로 YMCA 가족들과 함께 묘지에 간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1 월이 다 끝나버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딱히 뭔가 큰 캠페인을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스케줄 대로 착착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뿐인데도 한 달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버렸다.

11 월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앞당겨진 ALS 시험이 아닐까 싶다. 당초 10 월 28 일로 예정되어 있던 시험이 내년 1 월 6 일로 미뤄졌었는데, 갑자기 11 월 25 일로 앞당겨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11 월 19 일해야 알게 되었었다. 우리가 짜놓았던 수업 계획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부랴부랴 시험 대비 합숙에 들어갔었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을 급박하게 보내면서, 국가적인 시험인데도 이렇게 일이 처리될 수 있다는 데에서 화가 나기도 했고, 내가 정말 ALS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기도 했다. 지금은 그냥 그 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고, 그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중간평가 준비를 하면서 지난 세 달 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세 달 간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나는 3 번의 지원 끝에(5 기, 6 기, 8 기) 겨우 라온아띠 단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추합으로..!), 매번 지원할 때마다, 그리고 단원으로 선발된 그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지난 세 달을 돌아켜보면, 처음 그 마음가짐을 매일같이,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 것 같다. 매일매일이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지쳐서 아무 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낮을 놓고 있을 때에, 날 앞으로 이끌어 준 언니, 오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반에는 팀원들이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왜 우리 팀이 이렇게 꾸러졌는 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못 하는 부분을 다른 팀원들이 해줄 수 있고, 다른 팀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가끔은 현재의 행복함에 적응해버려서, 내가 라온아띠로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내가 바라던 것이었는지,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 지원서들을 되돌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 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 그 땐 행복했었지'를 넘어서서, '아 그땐 행복했고, 그만큼 또 열심히 살았었지'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이제 활동이 중반을 넘어섰는데, 남은 두 달도 알차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싶다, 지금처럼!